“제발 살아있길”…재한 네팔인 간절한 기도

9월 6일 서울네팔법당서 기도회
쿤상 스님, 8월 30일 이어 두 번째
유족 · 대사관 관계자 등 20여 명
실종자 무사귀환 · 극락왕생 발원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최근 발생한 네팔 대홍수로 가족을 잃었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재한 네팔 불자들이 9월 6일 서울 종로 서울네팔법당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 참석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우리 가족이 살아 있는지, 시신은 발견됐는지 알 수 없어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 네팔 대홍수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재한 네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전에서 실종된 가족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떠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9월 6일 서울 종로 서울네팔법당에서 네팔 대홍수 희생자 추모 기도회가 봉행됐다. 법당을 운영하는 라마 쿤상 도르제 스님이 개최한 이날 기도회에는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재한 네팔인과 유족, 주한 네팔대사관과 한국네팔국제교류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두 번째 기도회를 연 쿤상 스님은 “유족들이 이곳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마련한 것으로, 누구든지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불단 앞에 촛불이 하나둘 켜지자 참석자들은 쿤상 스님과 삼땐 라마 스님의 염송에 맞춰 ‘옴마니반메훔’을 함께 염송하며 한 시간 넘게 기도를 이어갔다. 차례로 촛불이 밝혀지는 동안 법당에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어졌다.

쿤상 스님은 기도문을 통해 “부상자들은 하루빨리 회복하고 실종자들은 무사히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닿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네팔 재난국가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1300여 명이 숨지고 5000여 명이 실종됐다. 이날 기도회에는 가족 65명을 한꺼번에 잃은 다와 칼상(54) 씨도 참석했다.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칼상 씨는 중국 접경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망자 명단을 전달받았다며, 자신과 연결된 가족 중 6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칼상 씨는 “제 가족들은 전부 라수와 지역에 살고 있었다”며 “형과 누나, 아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갑자기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고 슬픔을 표했다.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은 더욱 절박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고 있는 수수마 타망(31) 씨는 참사 발생 당일인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시아버지와 고모부, 삼촌 등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의 생사는 물론 시신 발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타망 씨는 “이번 대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아직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들 고시쉬 타망(21) 씨는 “목숨을 잃은 모든 영혼의 평안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네팔법당은 앞으로도 재한 네팔인들이 현지 소식을 공유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네팔 일상 회복 돕는다” 불교계 긴급구호

조계종 · 더프라미스 구호단 파견
아름다운동행 통해 기금 전달도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불교계가 현지에 긴급구호단을 파견하고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진경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9월 8일 출국해 9월 13일까지 네팔 라수와 구역의 둔체와 베트라와티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앞서 9월 5일 피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선발대는 마을 여건을 살피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현지 NGO와 협력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정하고, 구호 물품을 확보·배분하는 등 전달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이후 9월 8일 본대와 함께 피해 지원 지역을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긴급구호단은 출국에 앞서 9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사진〉 이에 진우 스님은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원활한 구호 활동을 펼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안전에 유의하며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도 9월 20일까지 구호 활동에 함께한다. 9월 8일 출국한 긴급구호팀은 피해가 큰 라수와·누와코트·다딩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일률적인 물품 배분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확인해 지원하는 맞춤형 중심의 긴급 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긴급구호팀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현지 상황과 수요에 따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전달도 잇따랐다. 월정사 주지 인광 스님은 9월 8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네팔 대홍수 재난구호 지원 성금’ 3000만원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들은 2400만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서울 연화정토사(주지 성천 스님)도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 500만원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기금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아름다운동행은 10월 말까지, 더프라미스는 9월 말까지 모금을 이어간다.

이현희 기자

-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농협은행 301-0366-4563-11 아름다운동행
- 하나은행 158-910020-26904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마을 사라져도 삶은 계속된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9월 9일 촬영한 네팔 트리슐레강 아래 마을의 피해 현장.

조계종 구호단, 8일 현지 파견
주민 필요 물품 파악해 조달
둔체 · 베트라와티에 구호품
10만달러 지원…“지속 절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네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규모의 긴급구호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아름다운동행, 사회복지재단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단은 9월 9일 오전 6시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북부 라수와 지역 둔체(Dhunche)를 방문해 현지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구호단이 이동한 트리슐리강 일대는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와 교량이 곳곳에서 유실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장을 안내한 니마 세르파 아름다운동행 현지 협력 NGO 대표는 사라진 마을을 가리키며 “큰 장이 서던 마을이었는데 이번 홍수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인명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긴급구호단장 선일 스님(총무원 사회국장)은 “우선은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호단의 현장 접근도 쉽지 않았다. 산사태와 급류로 기존 도로와 다리가 곳곳에서 유실돼 비포장 산길로 우회해야 했다. 카트만두에서 둔체까지 거리는 약 130㎞에 불과하지만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가 끊기면서 이동에 꼬박 하루가 걸렸다.



카이상 라마 시장 등 피해 주민들을 만나 현재 상황 등을 청취하는 모습.

실무자들은 둔첸 시장인 카이상 라마 씨와 마을 이장 다와 다망 씨를 만나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현재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카이상 라마 시장은 아내 쪽 친척을 포함해 친척 16명이 이번 홍수로 실종됐다. 가까운 친척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장으로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계와 복구를 챙겨야 하는 처지다.

카이상 시장은 “돈이 있어도 도로가 끊겨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식료품을 준비해 이곳까지 전달해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서 “다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도 시급하다. 일부는 현재 현지 사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는 친척들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긴급구호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생활과 교육, 돌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우선 피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합구호키트를 전달했다. 구호키트는 5인 가족이 약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쌀과 렌틸콩, 소금, 설탕, 라면, 고열량 비스킷, 식용유 등 식료품과 치약을 비롯한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 유통망을 통해 신속하게 확보한 구호물품은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배분됐다.

글 · 사진/네팔 라수와 둔체=공동취재단

오래도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종도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지지에 좋은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저를 믿고 귀한 한 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쉬움은 제 몫으로 깊이 새기고,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미래를 걱정하고 불교의 새로운 길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당선되신 진우스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단을 이끄시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38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는 서로의 뜻과 입장은 달랐을지라도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종단의 앞날을 걱정하고 불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종책과 종도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수행과 포교,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불보살님 전 기원드립니다.

불기2570(2026)년 9월

경우 합장